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오늘은 맥추감사절

### -주일 예배시간에 성찬식, 저녁에는 감사찬양예배로-

우리교회는 오늘(7일, 주일)을 밀과 보리의 추수를 풍성케 하시고 지난 반년동안 보 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로 드리게 되며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학생들이 울동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특별순서도 갖게 된다.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교회 학교에서는 부서별로 감사의 행사를 가진다. 또한 오늘 찬양예배는 맥추감사 찬양예배

모든 성도가 기도로 오늘을 준비하여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과 하나되는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 2002 서울교회 여름행사 일정

### -각 교회학교 별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주제로-

무더운 여름, 학교가 모두 방학에 들어가고 학생들이 학업에 지친 육신의 피로를 씻는 계절이 돌아왔다. 우리교회는 매년 여름철 학생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도 각 교회학교는 담당 교사와 교역

자를 중심으로 알찬 계획을 준비하였다. 특별히 올해는 12개의 교회학교가 여름행사계획을 준비하여 전교회적인 행사로 더욱 의미 있고 알차게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부서	주 제	날 짜	장소	강사
유아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7.22(월)	교회(702호)	이중윤 목사, 조대영 전도사
유치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7.22(월)~23(화)	교회(706호)	이중윤 목사, 이용자 전도사
유년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7.22(월)~23(화)	교회(102호)	이중윤 목사, 이영희 전도사
초등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7.22(월)~23(화)	교회(701호)	이중윤 목사, 신미숙 목사
중·고등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7.29(월)~31(수)	가나안 농군학교	자세교육일정
대학·청년부	성령이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7.15(월)~18(목)	충주호 리조트	이중윤 목사, 김운호 목사, 한상은 목사
장년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7.26(금)~27(토)	현대 성우 리조트	이중윤 목사, 이용식 목사, 오정식 목사
신혼가정부	하늘지기 하늘가정	7.19(금)~20(토)	미리내 가족캠프	이중윤 목사, 이규정 목사
사랑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7.21(주일)	교회(102호)	이성득 목사
에바디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8월14일(수)~15일(목)	베델하우스	서명철 목사, 유충우 목사
장로회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8월15일(목)	23사단 교육관	이중윤 목사외

## 금주부터 신설 13,14교구 출범

지난 6월16일자 순례자에 발표되었던 현재의 1교구를 조정하여 신설되는 13, 14교구가 오늘부터 출범한다. 이에 따라 1, 2교구는 한상은 목사가 담당하며, 13, 14교구는 이성득 목사가 담당케 된다. 교구신설에 따라 조정되는 다락방은 본지 3면에 게재되어 있다. 해당되는 성도들은 본지를 잘 참고하여 기도로 준비하여 새로운 다락방 모임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한편 오늘부터 오정식 목사는 3, 4교구를 이용식 목사는 5, 6교구를 담당하게 된다.

## 주일예배시간 어린이 탁아 안내

주일예배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본당에 온 0~7세까지의 영·유아와 유치부 어린이들이 예배시간에 못 참고 짜증을 내는 일이 종종 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이럴 때마다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교회는 7층 702호에 유아부실을, 706호에 유치부실을 준비하고 있다. 부모님이 조금 일찍 오셔서 아이를 맡기면 안심하고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담당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사랑과 기도로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다.

### 7월 행사계획

- 7(주) 맥추감사절, 6월 새가족 환영회, 교육위원회
- 14(주) 전도위원회
- 18(목) 군선교신학심포지움(101호 웨스트민스터 홀)
- 21(주) 교구위원회 교구찬양(6교구)
- 28(주) 찬양위원회

### 금주의 성경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아랍의 형이 아 니나 그러나 내가 아랍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개역개정판 말 1:2~3)

"I have loved you," says the Lord. "But you ask, 'How have you loved us?' "Was not Esau Jacob's brother?" the Lord says. "Yet I have loved Jacob, but Esau I have hated, and I have turned his mountains into a wasteland and left his inheritance to the desert jackals." (NIV Mt 1:2-3)

이시아서 강해

# 주여 잠잠치 마소서

## (이사야 64장 8 - 12절)



이중운 목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는 심판을 받을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접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쁘게 공의를 행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믿음이 끊어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온 이스라엘에 죄가 만연해 있음을 본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무기를 바르게 활용하여 신자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 1.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친밀하고 크다

#### (1)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자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8절).

세상에 일이 잘못되기를 기대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피조물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잘되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고, 은혜 중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구별하시어 지으셨고, 이스라엘을 위해 인류를 지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기쁨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피주셨습니다. 보호하시고 보급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기간이 천 년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 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뜻에 맞추어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구별된 관계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 (2)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였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8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이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므로 이스라엘과 부자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성애를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보호자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버린 아버지는 없습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 하십니다. 진흙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든 만들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 7:11).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녀 됨에서 점점 떠났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간구할 수 있는

선지자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확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창조주로서 왕으로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진노를 계속하지 아니하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운 백성을 죄악의 자리에 버려 두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특권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의 진실 된 회개와 겸손한 신앙과 순종을 인내로 기다리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7절).

하나님의 사랑은 은밀한 가운데 당신의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자식을 영접하고 은총 가운데 그들을 감싸주시는 것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 (3)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9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모세 시대 이후부터 왕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출 3:7,10, 7:16, 8:1).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말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 세기 동안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일하셨습니다(삿 8:23, 삼상 8:7, 10:19, 12:12).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삿 8:23).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삼상 8:7).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의 지배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깨닫기도 해야 합니다.

#### (4)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이다

하나님은 죄의 결박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들

에게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우리에게에는 이제 염려가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아버지가 든든히 지켜 주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받게 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 2.이스라엘의 고통이 심각함을 내세웠다

한국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고난 속에서 성장했고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심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10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11절).

선지자는 성읍이, 시온이,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다고 부르짖습니다. 성전 마당이 모두 황폐해졌다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교회는 비극에 처하게 되고 소망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9절).

선지자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확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창조주로서 왕으로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진노를 계속하지 아니하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운 백성을 죄악의 자리에 버려 두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성읍들과 시온이 황폐하였고, 이스라엘의 고난이 막심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자제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존엄성에 손상이 왔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지 마옵시고 침묵하지 마옵소서."

선지자는 위태할 때를 기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이다"(시 50:15).

환난 날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며 구원을 체험하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왕이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그리고 힘 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1교구 다락방 조정 안내

지도 목사: 한상은  
교구장: 하영수 장로  
간사: 최영진 집사 · 이인숙 권사

조정 다락방	이전 다락방	다락방장	지역
1-1	1-1	하영수장로	삼성 남자
1-2	1-4	최영진집사	대치3동 남자
1-3	1-5	박두영집사	대치1,4동 남자
1-4	1-28	김광룡집사	청실 국제 남자
1-5	1-30	양춘경집사	선경 여성 남자
1-6	1-7	박현영집사	청실1
1-7	1-26	김정애집사	청실2, 국제
1-8	1-32	조영자 집사	삼성101~104동
1-9	1-13	박정순권사	삼성105~109동
1-10	1-33	고완순집사	삼성110~114동
1-11	1-10	최현인권사	도곡 주공, 주공 고층
1-12	1-23	이인숙권사	개포 우성, 개포 현대1,2,경남
1-13	1-24	이경선 집사	선경
1-14	1-11	전영자권사	대치1동
1-15	1-9	임승자집사	대치3동(우성1차, 쌍용제외)
1-16	1-12	이규희권사	대치4동1
1-17	1-25	박현숙집사	대치4동2
1-18	신설	하옥봉집사	우성1차, 쌍용

### 13교구 다락방 안내

지도 목사: 이성득  
교구장: 김세재 장로  
간사: 김은태집사 · 이순희 권사 · 김인숙권사

다락방	다락방장	지역
13-1	김은태집사	은마 1-11 남자
13-2	김복승집사	은마 12-20 남자
13-3	조동완집사	은마 21-31 남자
13-4	신용식집사	미도 1-21 남자
13-5	이미승집사	은마 23,26,28
13-6	김영식집사	은마 3-10, 17
13-7	전해미집사	은마 2-8, 11, 12
13-8	박춘자집사	은마 17-22
13-9	김현숙집사	은마 15, 16, 17, 18
13-10	이종순집사	은마 30, 31
13-11	이순희권사	은마 1-31 새가족들
13-12	강미숙집사	은마 19, 20 새가족들
13-13	박복순집사	은마 1-31 새가족들
13-14	오은숙집사	은마 1-31 새가족들
13-15	김인숙권사	미도1, 2차

### 14교구 다락방 안내

지도 목사: 이성득  
교구장: 오정수 장로  
간사: 정동호 집사 · 송경점 집사

다락방	다락방장	지역
14-1	정동호집사	개포지역(5, 6, 7 단지) 남자
14-2	최낙준집사	개포지역(1, 2, 3, 4 단지) 남자
14-3	육재민집사	일원 수서지역 남자
14-4	우경자집사	개포경남 · 우성3, 8, 9차 · 현대1, 2, 3차
14-5	유성임집사	개포 주공 5, 6, 7단지
14-6	박종숙집사	주공 1, 2단지
14-7	윤용미집사	주공 3, 4단지
14-8	최희재집사	수서지역
14-9	심화숙집사	일원동

## 김영한 목사 가정을 찾아서

매 주일 오후 1시부터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종말론을 강의하시는 김영한 목사는 1993년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오시어 벌써 10째 사역하고 계신다. 그간 김 목사는 청년부, 대학부, 장년부 등 교회학교를 맡아 가르치셨고 지금은 평신도 신앙강좌반을 맡고 계신다.

김 목사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졸업하시고 지금은 숭실대학교 기독교학 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시다.

1946년 생이시라니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마치 소년과 같은 얼굴 모습을 간직하고 계신다. 최근 사모님과는 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돌아 오신 후에 만나서서 조금은 늦은 나이에 결혼하셨고 슬하에 소은, 소혜 두 딸을 두고 계시는데 둘째 소혜는 상담학을 공부하며 목회에도 뜻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종운 목사님과는 총현교회 대학부의 선후배 관계로 알게 되어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으며, 이 목사가 할렐루야 교회를 시무하실 때도 그 교회 협동 목사로 계셨다고 한다. 김영한 목사는 이종운 목사님을 두고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다정다감하시며 목회자로서는 소명감이 투철하신 분으로 교계와 학계에서 보기 드문 지도자라고 말씀하신다.

김영한 목사는 몇 년 전 직장암 선고를 받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자각 증세를 무시하고 있다가 암이 많이 진행된



되어 있는 상태로 뒤늦게 병원을 찾은 목사는 당시 완치를 확신할 수 없는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은 전보다 더 건강하신 몸으로 학교에서 가르침에 전념하고 계신다. 수술과 회복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 김 목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병을 고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불순종한 종을 그래도 사랑하시어 체질하시니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한 번 겸손한 신앙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자신은 목회자로서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김 목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진실로 그 마음에 모시어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뀌고 삶이 변하는 제자 됨의 참된 도리를 가르치는 영원한 교사로 남기를 원하신다. 주일이면 가끔 제자들의 교회에 초빙되어 설교를 하며 제자들이 목회 하는 모습을 뿌듯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스승으로서의 보람을 느끼신다.

김 목사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구절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로 자신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자기 안에 품기를 간절히 기도하신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8월에 서울교회에서 열리는 아시아 로잔 대회는 복음 전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대회이므로 이 대회를 개척하는 서울교회가 복음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란다 고 당부하셨다.

허숙(편집부)

### 아름다운 이야기

다리가 성치 않으시어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니시는 ㄸOO 권사님, 흥해작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회를 참석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봉투를 건축헌금으로 내셨다. 이 헌금은 흥해작전이 시작하기 전 기도하며 준비한 헌금봉투에 매일 매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시어 그 날의 승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씩 넣으셔서 20일 동안 모으신 것이다. 특별히 건축헌금으로 제목을 지어 바치든 권사님 생전에 서울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때문이시다. 얼마를 바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치고 얼마나 남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 목사의 말씀이 실감나는 과부의 열전 두 빛과도 같은 ㄸ 권사님의 헌금,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줄로 믿는다.

편집부

### 맥추감사절

맥추 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의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이다. 유대인들의 추수 감사절이었던 맥추절은 히브리어로는 '하그 하카츠르'이며,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란 뜻을 가지고 있다.

맥추절은 관련 명칭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출 23:16), 후대에는 일반적으로 칠칠절, 오순절 등으로 불리워졌다. 칠칠절(七七節)은 이때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初實節)로부터 시작하여 7주간의 곡물 추수가 끝난 뒤의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오순절(五旬節) 또한 추수기와 관계된 말로, 이 날이 초실절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제 50일째 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이 맥추절은 한 해의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린 축제였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맡겨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일상의 모든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이기도 하다. 단순 농경 사회가 아닌 현대 사회의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여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있는지, 또한 거기서 얼마만큼 추수를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다. 또 육식을 위한 추수와 함께 영혼의 추수 곧 전도 사역에서도 얼마만큼 수확을 얻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다. 이모작을 하였던 우리 나라에서는 맥추 감사절은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로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계속 지켜져 오고 있다.

# 몽골 대전을 준비하며

"센 베노?"(안녕하세요?)

"알탕 나~ 란 탕~ 타하스..."(હેષ્ટને બુટ્ટર.)

매주 금요일 7시부터 701호에서는 고등학생으로부터 70세의 장로님까지 여러 연령층의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28명의 몽골단기선교팀원들의 몽골 사랑의 연습의 열기로 가득하다.

'몽골 사랑은 몽골어 사랑으로부터' 되어진다고 생각하며 잘 풀리지 않는 혀로 몽골어를 외치고 또 외치며 몽골어 복음성가도 배운다. 현지인 강사를 모시고 배우지만 발음이 따라주지 않아 입을 비틀고 혀를 구부리며 비지땀을 흘리는 대원들의 애씀이 너무나 진지하다.

훈련의 내용은 먼저 마음을 합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이끌 수 있도록 찬양 연습을 한다. 단기선교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듣고, 각 사역별 별 모임을 통해 팀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역준비와 계획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전 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모든 훈련과 현지의 선교계획들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9시경에 시간을 마친다.

몽골단기선교팀은 8월5일부터 15일까지 10박 11일간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의 아멘교회(장년 100명 출석)와 근교의 갈보리 교회(장년 50명 출석)를 중심으로 교인수련회 지원, 여름성경학교 인도, 이·미용봉사, 의료선교, 고아원방문, 경로당 방문, 교회 개척지 탐방, 지역사회 봉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교10주년인 된 몽골은 외모가 우리와 비슷할 뿐 아니라 문화적 관습이 비슷한 점이 많아 상당히 친근감을 주는 나라이다. 몽골 교회들 또한 대부분 한국 선교 초기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한다. 교회는 130여 개가 세워져 있으며,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12000명 정도이다. 또한 연합신학교가 있어 1년에 10여명의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다.

불교와 미신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들이(한국인 선교사 약 350명-목회자, 평신도 포함)선교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외국인의 포교가 금지되어 있어 교회 내에서만 선교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선교팀은 구체적인 봉사 활동을 통해 일반인들을 접하며 간접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직능별로 편성된 이번 선교팀은 현지 선교사님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몽골인들과의 접촉을 최대화하여 아주 효과적으로 선교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준비과정에서 또한 현지 선교 도중에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엄청난 영적 전쟁인 '몽골대전을 앞두고 우리들의 무기는 강한 성을 무너뜨리는 뜨거운 기도밖에 없다.

선발된 특전 대원들은 온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와 구원미와 보급품 지원을 기다린다. 승전의 깃발을 꽂는 그날까지 중단 없는 기도와 후원으로 단기선교팀을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한다.

### <단기선교팀 기도제목2>

1.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 적절하게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2. 음식, 식수, 날씨 등 불리한 여건도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도록
3. 풍토병 및 기타 질병을 이겨내며 시중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4. 현지인과 화목하며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5. 어디를 가든지 예비된 돕는자와 좋은 여건을 만날 수 있도록
6. 각자가 맡은 역할을 주께 하듯 성실히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7. 예배를 인도할 이규정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8. 사단의 시험과 함정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9.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찬양하며 영광드리도록
10. 30명의 대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깊이 알아가는 참된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 6월에 등록한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찬호 안나원 고은실 김경배 오승주 배재송 임분도 배기돈 배기훈 한순희 김혜민 박석현 정부남 정춘임 최용석 김순자 정경미 김은하 김수강 백혜연 이영희 백민지 김오비 우숙자 한상준 임명숙 한민아 신을수 이상현 주영도 오가연 주서희 김수홍 강순덕 서교하 서주희 김영선 권택숙 김현지 정진선 이병현 남정열 전인삼 정은순 전지혜 최의규 박계숙 최효진 주연순 이 환

### 동정

- 지난 6월27일 우리 교회 장로부인들로 구성된 무지개회 총회가 열려 임원 개선이 있었다. 신임회장으로 장낙희 권사가 선임되었다.
- 이사:12교구 권문수 성도 정원조 성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5983번지 2층 031)751-2506
- 이사:5교구 하청자 성도,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736번지 교관주공 15단지 1511/707 031)411-3782
- 이사: 한민진 집사, 박정순 집사 가정(6교구), 영등포구 신길7동 2001번지, 847-9628
- 이전개업 : 홍유식집사,손명에 집사(13교구) 찰리즈 인터내셔널 영어스쿨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건너편 (2202-3030).
- 예원식 송금자 집사 가정 (11교구) 주방용 고무장갑200켤레 기증

☞금주의 식사제공: 박순옥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 이중윤 목사 장로교신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다

우리교회 이중윤 목사님이 장로교 주요 교단의 신학자들이 결성한 '장로교 신학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임 됐다. 지난 6월 20일 결성된 장로교 신학회는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수많은 교단으로 나뉘어 있는 장로교의 신학적 공통성을 확립함으로써 교단간의 연합과 일치에 초석을 놓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23개 장로교단의 신학교수 400여명이 가입돼 있다.

이 신학회는 지난해 6월부터 12개 신학교 교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토론을 거듭하면서 장로교가 하나되는 계기를 만들자는 의견을 모아 모임을 학회로 발전시켜 탄생하게 되었다.

장로교의 여러 교단을 두루 경험하고 그간 초교파적인 활동에 종사하므로 장로교에 대한 정확한 관점과 폭넓은 인간 관계를 바탕으로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이 목사님은 앞으로 장로교 신학회를 통해 장로교의 신학적 일치와 예배의식의 통일에 노력할 것이며 개신교의 65%를 차지하는 장로교가 연합하면 개신교가 일치하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백추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2. 여름성경학교·수련회가 은혜중에 준비되고 시행되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